

돈포리·頓浦里

선장면의 한 마을인 돈포리는 뒀고지와 열장원이라는 두 마을로 나뉜다. 뒀고지라 불리는 돈포리 1구 뒀고지에는 47가구가 살며, 2구인 열장원에는 65가구가 있다. 뒀고지 주민들은 100%모두 농사를 짓고 있고, 개룡말에도 63가구중 1가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외엔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돈포리는 본래 천안군 덕흥면의 지역이었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신창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포남리, 신흥리, 십자언리의 각 일부와 비방면의 상덕리, 돈곶리 일부를 병합하여 돈곶과 포남의 이름을 따서 돈포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돈포리 위치도>



⊗ 뒀고지, 열장원 마을

뒀고지 마을은 돈포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높이 4.1m가 되는 돈대가 이루었다. 조선시대 이름이 김선복이라는 과객이 지금의 당진에서 나룻배를 타고 가던중에 생긴 일화로 마을의 자연부락명이 지금도 뒀고지 또는 뒀곶이라고 한다. 열장원 마을은 마을이 생긴지는 100여 년으로 개룡말, 새원장, 신원, 열장원동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벼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마을이다. 개룡말은 돈곶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개울 남쪽에 있다 하여 개룡말이란 이름이 붙었다.

<조사당시 돈포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덴고지는 돈포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이다. 돈곳 혹은 돈고지, 돈관리 라고도 불리는 부락이다. 경도가 126-50-30 이며, 위도가 36-46-30인에 위치하며 돈포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높이 4.1m 가 되는 돈대가 곳을 이루었음.

열장원 마을은 위도 36-46-20, 경도 126-51-00의 마을에 위치해 있다.

2) 현황

덴고지의 인구는 남자 74명, 여자 67명이며 총 141명이고 47가옥이 살고 있으며 주민의 100%가 농업에 종사한다. 덴고지는 논만 86ha이다.

열장원 마을은 남자 96명 여자 94명으로 총 190명이 살고 있으며 98.45%가 농업이고 1.6%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열장원도 덴고지와 마찬가지로 밭은 없고 논만 105ha이다.

- 인구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덴고지마을	141명	74명	67명
열장원마을	190명	96명	94명

- 생업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서비스업	기타
덴고지마을	100%	100%		
열장원마을	100%	98.4%	1.6%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덴고지마을	86ha	86ha	
열장원마을	105ha	105ha	

덴고지 마을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경운기와 분무기가 각각 36대로 가장 많고 트랙터, 콤바인도 16대, 14대가 있으며 이앙기 27대, 관리가 1대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열장원 마을은 경운기 51대, 트랙터 15대, 분무기 50대, 이앙기 28대, 관리기 1대, 콤바인 8대들을 소유하고 있다.

- 농기계 보유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분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덴고지마을	36대	36대	16대	14대	27대	1대
열장원마을	51대	50대	15대	8대	28대	1대

덴고지마을과 열장원마을 모두 마을회관과 엠프가 각각 1개씩 있고, 농약기구도 8개가 있다.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 프	사물놀이기구
덴고지마을	1개소	1개	8개
열장원마을	1개소	1개	8개

덴고지 마을엔 30대가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40대가 28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성씨 별 분포를 보면 박씨가 17%로 가장 많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학생은 29명인데 초등학생 5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각 9명이다. 열장원 마을의 연령 분포를 보면 덴고지 마을과 같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성씨분포에소는 김씨가 20% 가장 많다. 학생은 초등학생 8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4명으로 총 30명이다.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덴고지마을	13명	15명	20명	5명	25명	20명	20명	16명	6명	1명
열장원마을	15명	19명	27명	19명	26명	27명	25명	28명	11명	3명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박씨	유씨	강씨	한씨	기타
덴고지마을	100%	13%	13%	17%	11%	11%	11%	24%
열장원마을	100%	20%	20%	8%	14%			37%

- 학생 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덴고지마을	5명	6명	9명	9명
열장원마을	8명	7명	11명	4명

- 마을호당 평균 소득 : 년/1,080만원

- 최고령자 : 김 난 (91세)

3) 자연경관

덴고지 마을은 온통 들뿐이다. 단지 군데군데 집들이 점처럼 보일뿐이다.

개룡말 마을은 마을이 대부분 논이며 동쪽으로는 아산만으로 이어지는 작은 개울이 있다. 집들은 마을 북쪽 끝에 모여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돈포리는 본래 천안군 덕흥면의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의 개정에 의하여 신창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 구역의 폐합에 따라 포남리, 신흥리, 십자언리의 각 일부와 비방면의 상덕리, 돈곶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돈곶과 포남의 이름을 따서 돈포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돈포리 마을은 청주한씨, 진주정씨, 전주이씨가 약 400년전에 터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지금은 청주한씨 5가구이며 진주정씨는 1가구뿐이며 전주이씨는 5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지 명

·건너신동 : 돈곶 건너편에 새로된 마을

·돈 곶 : 뉘고지를 돈곶이라고도 하는데, 뉘고지라 불리게된 전설외에도 돈곶이라 불리게 된 설이 두가지 있다.

첫째는 윤선이 출입한 돈곶이라는 항구명으로 김복선(젊은 과객의 이름)의 엽초설에서 본 딴 것이다. 엽초설(뉘고지 지명에 관한 전설)은 전설편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두번째로는 삼교천변에 좁고 길게 뻗은 골지로 삼면이 수면 인고로 물에 쌓인 부토가 아닌 가 염려하여 '두드려 본 곶'이라는 뜻에서 불렀다는 설이다.

·서들강문 : 도고, 선장 예산, 당진, 인주등 무한천과 삼교천 하구에 펼쳐져 있는 들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

·개룡말 : 돈곶 동남쪽에 있는 마을,개 남쪽이 됨.

·신 원 : 돈곶 동쪽에 있는 마을. 군덕리 위쪽이 되는데 초지내의 침수를 막기 위하여 새로 언을 쌓았음.

·신원장 : 신원옆에 새로 된 마을 새로 언을쌓고 생긴 마을이라는 뜻

·열장원 : 신원 남동쪽에 있는 마을 앞에 I 자로된 길이 있어 생긴말

7) 전 설

-뉘고지(지명에 관한 전설)

선장면 돈포리에 뉘고지라는 높은 돈 대가곶을 이룬 곳이 있다. 이조때의 일이다. 임금이 김복선이라는 사람을 시켜 민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어느 마을이 인심이 좋은가 어느 마을이 효부효자가 많은가를 알기 위해서였다. 과적의 행세로 이곳 저곳을 살피던 김복선은 그런대로 편안히 지낼수 있었다. 모든 인심이 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 이숙할 즈음 그는 지금의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에 도착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그는 무척 피곤해서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자 한 머슴이 나왔다. "이 곳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그 말에 머슴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보슈, 이 마을에선 묵지 않는게 좋을거유." "아니, 이렇게 늦었는데 어떻게 한 단 말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강이 있으니 거기서 나룻배를 타시구료. 그 강만 건너면 다른 마을이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는 머슴에게 사정사정하여 겨우 들어 갈 수 있었다. 허술한 사랑방으로 안내를 받은 그는 머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름이 아까와서인지 불도 켜지 않고 저녁상이라고 주는 것이 콩보리밥에 간장 한종지 였다. 다 떨어진 이불을 덮고 자며 그는 투덜거렸다. "아니 이런 기와집에서 이러한 대접밖에 할수 없단 말인가." 이튿날 새벽 그 집을 떠나며 머슴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이 마을 사람 모두 콩보리밥에 간장 한 종지로 나 그네를 대접하는가?" "예, 그것이 우리마을 사람의 밥상과 똑같은 걸유" 머슴의 말에 그는

까우똥했다. 잘된 농사를 보면 못사는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은 잘 먹으면서 나그네에게 이런 대접을 한다 싶어 괴씸한 마음이 들었다. "임금께 알려 혼내 주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다음 마을을 가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나룻배를 탄 후 그는 자기 연초가 물에 젖어 뱃사공에게 "여보 사공 내 연초는 물에 젖어서 그러니 연초 한 대만 빌립시다." 한즉 사공의 말이 가관이었다. "나는 물에 젖은 연초도 없으니 손님이 연초를 내게 줘 주시오" 그 말에 그는 참으로 "된곳(육심쟁이가 많이 사는곳)이구나"하고 탄식했다. 그가 배에서 내린곳이 선장 돈포리로 이곳에 된곳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민정을 살핀 후 그는 임금께 나가 제일 먼저 이곳에 대해 아뢰었다. "다른곳은 인심이 모두 후했으나 단 한곳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소상히 들은 임금님은 진노해 당장 그 마을 원님을 부르라 하셨다. 그러나, 그 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병사가 들어와 오랑캐가 쳐들어 왔음을 알렸다. 뜻밖의 전보에 임금님과 대신들은 모두 놀랐다. 그때 또 한 사람의 대신이 들어와 알렸다. 어느 마을에서 군량미로 많은 쌀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임금님과 대신들은 다시 놀라며 착한 백성들의 마음에 기운을 얻었다. 오랑캐는 작은 무리였다. 어렵지 않게 그들을 물리친 후 임금은 큰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군량미를 보낸 마을 덕이 나라." 흐뭇한 마음으로 그 마을 대표를 부르셨다. 그때 임금 곁에 서 있던 김복선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된곳에서 내가 묵었던 집 주인이 아닌가." 그 사람이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허나 모든 것이 나라일을 걱정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비록 나그네에게 대접은 소홀하나 그것이 나라의 보탬이 되니 어찌 나쁜일이라 하겠습니까?" 임금님과 김복선은 그 말에 감복하여 그 마을에 후한 상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나그네에 대한 대접은 여전해서 된곳이라는 이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변하여 지금은 "덴고지"라고 계속 부르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 1년에 두 번 향우회모임을 개최한다. (쾌적한 마을조성 및 경로효친 행사 개최)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 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음.

10) 종교단체

돈포리 마을에는 종교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공장현황

선도 기업사 대표 : 손준근 돈포38-1번지 생산품목:농업용수공구

12) 마을의 특성

돈포리는 둔포면과 헛갈리기 쉬운 지명이나 이마을 은 그마을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특히나 돈포1리 덴고지 마을은 자연지명이 매우 특이하게 지어져 있고 그 유래도 여러 가지가 있어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이마을 역시 벼농사를 주업으로 쌀이 특산물이다.